



교구 수호자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경축 이동)

2024년 10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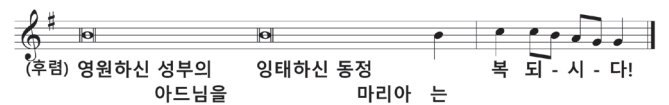
입 당 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제 1 독 서 사도행전 1,12-14

화 답 송

◎ 영원하신 성부의 아드님을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는 복되시다!



1.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2.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3.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4.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5.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제 2 독 서 갈라티아서 4,4-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나이다. ◎

복 음 루카 1,26-38

영성체 송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주보 표지 공모전(미술 부문) 수상작 : 백승연 릴리아나(남양산성당)

성모님 사랑의 고백, 로사리오

로사리오 성월에 성모님께 드릴 선물을 생각합니다. 성모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발현하실 때마다 묵주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늘 “묵주 기도를 바쳐다오.”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파티마에서는 여섯 번을 발현하실 적마다 묵주 기도를 바쳐달라는 메시지를 한 차례도 빠트린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현하신 10월 13일에는 당신 스스로 “묵주 기도의 모후”라 칭하셨습니다. 도대체 묵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라면, 성모님께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실 때마다 묵주 기도를 바쳐달라고 하시는지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들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열망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가장 확실하게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방법은 매일 묵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모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묵주 기도를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묵주 기도는 누구나 바칠 수 있는 기도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바칠 수 있는 기도도

아닙니다.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바칠 수 없는 기도가 묵주 기도입니다.

묵주를 손에 잡는 것은 엄마의 손을 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손을 잡습니다. 애인을 사랑하면 애인의 손을 잡고,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따라서 묵주를 손에 쥐는 자체가 훌륭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묵주를 잡는 순간 엄마의 현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묵주는 우리를 성모님의 손길에 묶어두는 황금 사슬이 되어 성모님의 가장 강력한 개입과 현존을 불러옵니다.

성모송은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모송을 가장 많이 바칠 수 있는 기도가 묵주 기도입니다.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묵주 기도를 잘 바칠 수 있냐고 묻곤 하는데, 저의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묵주 기도는 많이 바칠수록 잘 바치게 되고, 잘 바칠수록 많이 바치게 된다고. 그러나 많은 이들이 묵주 기도의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단조롭고 지루한 기도만으로 여깁니다. 반복이 주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묵주 기도는 재미없는 기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고백은 한 가지 표현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사랑의 고백을 한 가지 언어로 반복한다고 해서 지루함을 느낀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끊임없이 되뇌는 사랑의 언어. 그것이 바로 묵주 기도입니다. 묵주 기도가 지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로사리오 성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품 설명



어머니의 품에 맡기오니,
기쁨과 희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참된 하
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
록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
를 들어주소서.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
지 못한다.”(마르 10,15)

주보 표지 공모전(미술 부문) 수상작 : 백승연 릴리아나(남양산성당)

김강정 시몬 신부
남천성당 성사담당



하느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사춘기에 나는 주일학교가 지루하고 귀찮았고 성당에 나오는 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밌었다. 레지오도 그만두고 복사는 의무감이 되어 갈 때쯤 코로나가 터지며 자연스럽게 냉담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 진학할 무렵, 2월 한 달 동안 같이 성당에 가지 않겠냐는 성당 친구의 제안에 나는 같이 가겠다고 답했었다. 친구가 늦어 혼자 먼저 성당에 가 기다리던 중 성전에서 눈치가 보여 밖에 나와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셨고, 그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다.

어렵듯이 옛날 생각도 나고, 조금의 씁쓸함을 포함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느껴져 성전 한 구석에만 있더라도 미사는 계속 참례했었다. 옛날에 엄마에게 이끌려 반강제로 첫영성체와 복사단, 소년레지오까지 했던 조기교육도 도움이 됐던 것 같다. 그렇게 성당 적응기가 끝나갈 무렵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다.

2023년 여름LT에서 나는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뭔가 기분이 좋았고, 그저 같은 갈래며 같은 참가자라는 이유로 사람들과 친해지며 명지라는 작은 동네를 벗어나 부산, 울산, 경남권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며 많은 것을 배웠다. 항상 서로 상처 주고,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사람들만 보다가 이런 친구들을 만나니 성격도 많이 밝아졌고, 항상 귀찮기만 했던 주변 일들도 이제는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장·차장이 해야 하는 것, 남들과 대화하는 법 등 학교 공부가 전부인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토요일은 모든 일정을 비워야 하고, 시험 기간도 수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여행도 자주 가는데 성당을 위해 포기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현실에 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려놓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미사를 본다는 것, '하느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주일학교이고 복사단이고 소년레지오라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2024년 다시 시작된 정기총회에서 부산가톨릭고등학생연합회 회장이 된 후 전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하면 더 좋겠지만 18살이라는 나이에 LT 같은 큰 행사를 직접 진행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냉담을 하는 친구들이 돌아와 성당에서 같이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 많은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시간을 보낼 방법을 고민하고 기도하겠다.

정 시 후 올리오

명지성당 · 부산가톨릭고등학생연합회 제62대 회장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울산	녹산(서부산)	마산	오늘의 강론	
		FM 101.1MHz	FM 93.7MHz	FM 101.5MHz	FM 101.7MHz	월~토 06:50 (재) 16:50	10.7(월)~10.12(토) 김강성 신부(남천성당 성사담당)
 다정다감다섯시 진행: 이한나 아나운서 10.7(월) <김세훈의 리포터현장> 부산가톨릭평화방송 공개홀 101.1 축복식 현장 / 출연: 김세훈 리포터	 사랑이 있는 세상 진행: 김소현 아나운서 10.9(수) <그라시아의 오마이갓터뷰> 부산가톨릭대학교 60주년 특집 2편 지역의 벚으로 / 출연: 박소현 리포터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힘은 참여!

부산교구 초대 교구장이신 최재선 주교님은 신자들에게 성모신심과 순교신심을 강조하셨습니다. 병인박해 100주년을 기념하여 광안성당을 순교복자 기념성당으로 지정하고, 오륜대에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진출하여 순교자 현양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1984년 103위 순교성인 탄생 이후, 교구는 1987년 순교자현양위원회를 조직하였고, 1988년 순교자현양위원장으로 임명된 송기인 신부님은 이듬해 부산가톨릭센터 6층에 사무실을 마련하며 본격적으로 순교자 현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영장대순교성지, 생곡 조씨 형제 순교자 묘, 언양 김 아가타 묘 발굴 및 성지를 조성했습니다.

1993년, 순교자현양위원회는 순교자들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교회사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수영 장대굴 순교자들에 대한 학술연구를 하며 이정식(요한)과 양재현(마르티노)을 시복청원하였습니다. 신자들에게 이들의 시복을 알리기 위해, 약전 10,000권을 제작하여 본당에 배부하고, 강의를 개최하며 매월 시복청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교구평협에서는 2008년 8월부터 매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를 실시하였는데, 연인원 2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정식과 양재현의 시복을 위해 땀흘리며 기도했기에, 2014년 복자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1987년 김범우 토마스 순교자의 묘를 발굴한 후, 부근 부지를 매입하여 묘를 단장하고, 성모동굴성당과 교육관 등을 조성했습니다. 김범우 토마스는 2014년 시복청원하여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졌고 찾아오지 않은 순례객들로 성지운영과 순교자 현양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4년 순교자현양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총대리 주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시고, 교구 전체의 성지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성지 관련 신부님들이 모여 순교자현양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이 마련되었습니다. 해야 하는 사업이, 오륜대순교자성지 조성, 생곡 조씨 형제 순교자 묘 주변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 언양성당 100주년 준비 등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륜대순교자성지 조성 사업을 교구민 전체의 사업으로 여기고, 교구민들에게 그 사업의 중요성과 더불어 순교자들의 신앙을 알려서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3위 성인이나 124위 복자의 탄생에 영광하거나, 잘 조성된 성지를 순례하면서 좋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영광과 성지 조성을 위해서는 순교자들의 인내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값진 삶이 있었고, 그 성지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이들의 봉헌과 기도 헌신을 알아야 합니다. 순교자현양위원회는 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순교자들의 후손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순교자 현양 사업에 동참하고, 특히 오륜대순교자성지 조성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한 건 도미니코 신부
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부위원장

한국 천주교 주교단, 사도좌(교황청) 정기방문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와 총대리 신호철 비오 주교는 지난 9월 16일(월)~22일(일) 교회법(제399조 1항)

에 따라 5년마다 이루어지는 사도좌 정기방문(Ad limina Apostolorum 앳 리미나) 일정을 마치고 왔다. 이번 방문은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와 바오로의 묘소 순례, 교황 면담, 교황청 부서 방문을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특별히 순교자 대축일(20일) 교황 알현 후에 성 베드로 대성전 외벽에 설치된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앞에서 '순교자 찬가'를 부르며 한국 순교 성인들을 위해 기도했다.

오륜대순교자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9월 22일~9월 28일] 합계 : 18,705,000원, 누계 : 3,338,157,665원

남양산성당오르다 1,200,000 남천솔희회원 500,000 홍원표 삼원 10,000,000 골룸바 1,000,000 김환순 1,000,000 옥동익명 100,000 김유빈 2,000 김신욱 500,000 강종순 300,000 강성태 300,000 고미숙 300,000 우중민 300,000 이돌숙 300,000 천요셉 300,000 유미영 100,000 수원백씨 20,000 정수일 100,000 백상자 100,000 서주현 100,000 최형순 100,000 강대엽 50,000 김국원 30,000 정영용 10,000 이희중 50,000 김영화 30,000 강종선 200,000 손정미 100,000 박병조 100,000 김찬우 150,000 박서희 10,000 서옥엽 10,000 박상심 30,000 윤병철 20,000 강금순 20,000 이유경 100,000 원삼임 200,000 천재금 100,000 황덕자 100,000 박길숙 50,000 김화자 20,000 박주남 50,000 하도연 50,000 이언경 50,000 유재임 100,000 장정례 100,000 김풍자 100,000 권오길 103,000 전옥화 50,000 강물례 10,000 김국원 30,000 최옥숙 10,000 이용수 50,000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협 301-0629-8734-11, 부산 113-2014-1175-03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성체와 성혈을 함께 모시는

‘양형영성체’(兩形領聖體)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초대 교회 공동체는 성체와 성혈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셨습니다. 이 전통은 12세기 말까지 계속되었지만 13세기부터는, 교우들이 성혈을 영하지 않았습니다. 성혈을 흘릴 위험성이 크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이미 성체 안에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성혈을 포함하여 온전히 현존하신다는 신학적인 근거 때문입니다. 15세기 양형 영성체만이 구원의 필수조건이라는 ‘후스 이단’(Hussites; 양형영성체파)이 등장하였지만, 교회는 콘스탄츠 공의회(1415년)와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를 통해 교우들의 양형영성체를 금지하고 성체만 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는 교구장의 판단에 따라 특별한 경우 교우들도 성혈을 받아모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전례헌장 55항 참조) 영성체는 성체와

성혈의 양형으로 할 때에 더 충만한 형태를 지니며, 성찬의 표지가 한층 더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체만 모시는 영성체로도 그리스도를 참된 성사로 온전하게 모시는 것이므로, 모든 미사에 양형영성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81-282항)

양형영성체는 세례, 견진, 혼인, 서품, 서원, 병자성사, 피정, 각종 회합 미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80조) 양형영성체는 성체분배자로부터 성체를 받아 모신 뒤 성작을 건네받아 직접 마시는 방법과, 성체분배자가 성체를 성혈에 적서 교우의 입에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총지침 286-287항) 교우가 스스로 성체를 손으로 집어 직접 성혈에 적서서 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전례위원회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 - 홍보미사

복산지구 : 10.10(목) 10:00 복산성당
문의 : 629-8760(성소국)

부산가톨릭청년합창단 헬레스티스 제2회 정기연주회

· 10.12(토) 17:00 / 문의 : 629-8784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
주제 : 위로의 밤(With Rosary)
[전석 초대] 기념품 제공(선착순)

10월 혼인강좌

· 10.13(일) 15:00~18:50 · 부산가정성당
대상 : ① 결혼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
② 교회혼인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
접수 : 100% 온라인(catholic-marry.or.kr),
회당 선착순 50커플, 당일 접수 불가
문의 : 441-3501(가정사목국)

제3회 혼인성소 발견하기

· 12.15(일) 10:30~17:00 · 부산가정성당(초량동)
대상 : 혼인 희망하는 짝 없는 가톨릭신자로
34~46세(1990~1978년생) 미혼자 ; 제2회
혼인성소 발견하기(2023년) 참가자 배제
접수 : 선착순 남녀 각 30명
문의 : 441-3501(본당 및 가정사목국)

본 당

울만성당 사무장 구함

서류 : 이력서, 본당신부추천서, 교적사본
자격 : 전산(한글, 엑셀)가능 / 문의 : 973-9509
근무 : 토 17:00~21:00, 일 09:00~14:00
※ 토, 일요일만 근무합니다.

가야성당 10월 성령치유대피정

· 10.8(화) 매월 두번째 화요일 13:00~16:30
· 가야성당(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출구)
강사 : 신상욱 형제(서울대교구)
미사, 안수, 고해성사 : 윤명기 신부
준비물 : 개인컵 / 문의 : 010-5511-6593

양산성당 사무직원 구함

자격 : 한글 및 엑셀 숙련자 / 문의 : (055)386-2065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본당신부추천서

기관·제 단체·위원회

오순절평화의회마을 10월 김해후원회미사

김해 : 10.7(월) 10:00 임호성당
문의 : 782-0765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양산 : 10.7(월) 10:00 남양산성당
울산 : 10.8(화) 10:00 야음성당
부산 : 10.10(목) 10:30 우동성당
문의 : 600-8800

교정사목회 후원회미사

부산 : 10.8(화) 10:00 서면성당
울산 : 10.19(토) 10:00 옥동성당
문의 : 441-7729

부산 체나쿨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10.15(화) 매월 세번째 화요일 · 가야성당
14:00 체나쿨로 기도(성체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15:00 미사 및 안수(티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
지도 : 김기영 신부 / 문의 : 010-8879-2376

목주 기도 성월에 함께하는 찬양성시간

· 10.10(목) 20:00 · 서면성당 성전
문의 : 809-0642

성령새신 봉사회(영성의집)

- 중앙성당 수요성시간기도와 미사
· 10.9(수) 13:00~15:30 (매월 둘째 수요일)
- 금요일미사 : 10.11(금) 19:40~22:30
- 499차 교구성령묵상회(일반)
· 10.25(금) 18:30~27(일) 17:30
- 24년 성령새신 부산대회
· 10.12(토) 09:00~17:30
강사 : 김경희 수녀, 한연홍 신부 / 미사 : 손삼
석 주교, 전담신부 및 지도사제단, 강사 신부
* 미사도구, 묵주, 돗자리, 도시락, 컵 등은 개
인별 지참요 / 문의 : (055)382-9465

성령새신 봉사회(울산 영성의집)

- 목요 밤 미사 : 10.10(목) 20:00~22:30
문의 : (052)244-7014

파티마의세례사도직 기도모임

- 10월 묵주 100단 기도회
· 10.7,14,21(월) 09:30
- 10월 평 금요일 철야기도회
· 10.11,18,25(금) 22:00
22:30 미사 / 익일 04:00 미사
문의 : 646-3746, 010-6764-3746

김범우순교자성지 사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

· 10.12(토) 09:00 삼랑진역 출발 / 식사주문 가능
문의 : (055)356-7030(김범우순교자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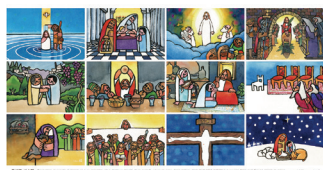
비아회 야유회

· 10.14(월) 08:00 교구청 출발
· 청도 성모솔숲마을 / 문의 : 010-4541-3239

꾸르실로 참가신청

451차 자매 : 10.17(목)~20(일)
452차 형제 : 10.24(목)~27(일)
※ 신청서 상시 접수(각 차수 50명 선착순 마감)
문의 : (055)388-5734 또는 본당 간사

2025년 탁상용 달력 신청



■ 신청방법 : 카카오톡 채널

<부산교구달력> 친구 추가 후 신청
(내용 : 성명, 세례명, 본당, 전화번호, 신청부수)

■ 판매가 : 3천원/1부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 입금계좌 : 농협 301-2018-0726-5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입금자명 : 성함+전화번호 끝 4자리

■ 보급방법 : 12월 중 본당 수령(추후 공지)

■ 문의 : 051-629-8717, 8750~2

(주)씨 피 여행사

12/2 나가사키 순례 항공 3일 KE
2/10 다낭 성모발현지 순례 LJ
2/11 멕시코 과달루페 순례10일 AM
247-5858, 010-3837-6434

(덕천)길맥외과의원

하지정맥류 중점 클리닉
원장 : 박우일 요셉
331-8888, 8899
덕천역 9번출구 파리바게트 건물 6층

미 래 고 속 관 광

11월 국내성지순례 (인천교구 8곳)
1차 11/9(토)~10(일), 2차 11/16~17
인천 4곳, 강화도 3곳, 김포 1곳
우종한(리차드) 010-3720-0303

스마일정경우비노의학과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744-8181, 010-5616-8600

삼성내과MR영상의학과

갑상선/당뇨센터, 위/대장 내시경
전문의 14명(여의사 5명)
박인호(루카), 서수홍(라파엘)
하단역 2번출구 208-5566

라 파 엘 성 지 순 례

라파엘 특선(동반자100만원 할인)
1/15, 2/11, 3/11 포르투갈 일주 9일
1/17, 2/14,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대표 : 유재구 요한 (02)778-8565

제 주 성 산 골 든 뷰 호텔

제주 성산일출봉·우도 길목
섬지코지·올레1코스·성산포성당
본당 단체별 맞춤 순례·가족·개인
대표 오일석(요한) 064-784-8885

미카엘여행사 성지순례

(부산) 11/14 인천 의정부 3일
(부산) 25/1/20 태국 파타야 5일
(인천) 25/2/6 스페인 포르투갈 12일
정상훈 미카엘 010-8650-9690

쌍두스 챔버콰이어 창단연주회

·10.19(토) 17:00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
우정출연 : 첼리스트 이슬, 안젤리카 합창단
문의 : 010-8519-0621

라우다테윈드앙상블 제12회 정기연주회

·10.14(월) 19:30 ·온천성당
지도 : 신요안 신부, 지휘 : 이수영, 단장 : 황순호
*단원 대모집 - 색소폰,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혼, 트럼펫, 트럼본, 일렉, 드럼, 키보드
문의 : 010-9503-0977

제3회 부산가톨릭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0.18(금) 19:30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
특별출연 : 작곡(김현훈), 오르간협연(박은정),
기장성당 청년밴드 그레우리(최지원, 노이서),
국악앙상블(최경철, 김현경, 안하운, 곽현아),
연합성가대(개금, 광안, 남양산성당 성가대)
지휘 : 김정웅, 단장 : 원성현, 지도 : 손지호 신부
입장료 : 전석초대 / 문의 : 010-7590-8521

제2회 cpbc 어울림누리

아름다운 성가 동행음악회

·10.19(토) 17:00
·부산가톨릭평화방송 공개홀 101.1
출연 : 고영옥, 김혜선, 박성련, 신경옥, 서세정,
김준하, 강현숙, 민정식, 이용웅, 이상윤
문의 : 010-4434-6605(고봉수) *무료입장

음악교육원 성가대지휘 전문가과정 개설

대상 : 본당 성가대 지휘에 관심있는 사람
기간 : 연간 24주간 3년과정(토 09:00~13:00)
입학시험 : 2025.2.15(토)
등록금 : 1년 290만원 / 문의 : 519-0475

무료진료소 도로시의집 봉사자 모집

·일 14:00~17:00(월 1회 또는 격월 1회)
대상 : 치과 의사, 치과위생사
문의 : 010-4499-0100(노동사목)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10.8(화) 10:00 ·이기대성당
문의 : 010-9081-1743, 582-1774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후원회미사

·10.10(목) 14:00 / 문의 : 634-4820
·파티마의세계사도직 2층 경당

삼위일체수녀회 가족회미사

·10.10(목) 14:30 ·수녀원
문의 : 463-7660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10.13(일) 15:00 ·봉래성당
문의 : 010-9464-2089

<1일피정> 성경은 왜 다른 책들과 다른가? 어떻게 다르게 읽어야 하는가?

·10.19(토) 10:00~16:00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양재현마르티노관 201호
참가비 : 5만원 / 접수 : 010-8193-2648
동반 : 이영근 수사(양주올리베타노수도원)

예수마음기도 하루 무료 피정

·10.12(토), 11.9(토) 10:00~15:00(14:00 미사)
매월 둘째주 (토) 무료피정 예정
·부산 가톨릭센터(462-1870)
강사 : 권민자 수녀 / 신청 : 010-4837-7509

밀양가르멜수녀원 10월 후원 미사

·10.15(화) 10:30(매월 3번째 화요일)
·남천성당 / 주례 : 이석희 신부
문의 : (055)353-6597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성소모임

대상 : 만 45세 이하 미혼여성(상시 상담가능)
문의 : 010-3355-4997, 010-9199-4995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1차 : 11.6(수) 15:00~7(목) 13:00
2차 : 11.13(수)~14(목)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참가비 : 8만원(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 010-6791-0071(문자)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성경통독

·주 1회 매주 목요일 20:00~21:30
대상 : 20~45세 미혼 여성
문의 : 010-9353-1773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말씀여행
·11.1~3, 11.15~17
·성이시돌 피정의집 (통합사목센터)
대상 : 개인, 단체 (본당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문의 : 010-9670-9775, 010-2231-2074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성지순례(추자도포함) : 11.3~6, 11.18~21
11.24~27, 12.1~4, 3.1~4, 4.27~30
생태순례 : 10.28~30, 11.14~16, 12.7~9
연말연시특별피정(한라산) : 12.30~1.2
문의 :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한라산눈꽃산행 접수중)
자연순례 : 10.23~25, 11.1~3, 11.7~9,
11.21~23, 12.1~3, 12.6~8, 12.14~16
추자도포함 : 11.16~19, 11.25~28, 3.13~16
연말연시(한라산) : 12.29~1.1(해넘이/해돋이)
대상 :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문의 : (064)796-4182, (02)773-1455



공간 101.1
CAFE X STAGE X GALLERY
2024.10.5(토) 17:00 축복식

10월·OCT

대형갤러리 전시 안내

자세한 사항은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참고

이상호 대형갤러리 초대전

10.3(목)~10.8(화) 10:00~17:00

별전(別展)

10.9(수)~10.13(일) 10:00~19:00
OPENING : 10.9(수) 17:00

DAYSTORY

10.15(화)~10.20(일) 10:00~17:00
OPENING : 10.15(화) 17:00

가톨릭사전가협회 제30회 정기전
보시나 종더라(사별의 향가전)

10.30(수)~11.5(화) 10:00~17:00
개전식 : 10.30(수) 17:00

‘육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송월타월 부산진대리점 SINCE 1965 (부산진시장, 우리은행 옆) 632-5690, 010-4807-5690 양홍식(토마스) 유명애(루시아)	정대수 맑은신경과 전)부산대학병원장 치매, 어지럼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두통, 고혈압 부산대학교 부총장 불면증, 뇌졸중 남천역 3번출구 612-6100	우리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 매매·교환·위탁·폐차·정비 조남철(네레오) 010-3573-8797 현대자동차 및 신차의 모든 차량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보나투어 11/4 중국 상해 성지순례 4일 109만원 11/18 나가사키 성지순례 4일 145만원 12/18 남인도 성지순례 13일 595만원 (02)732-4578 www.bonatour.co.kr
김병호 정형외과 척추관절/통증재활/도수/물리치료 정형외과 전문의 원장 : 김병호 루카 752-0020 수영구 수영로581 광안역 4번출구(4/5층)	가톨릭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2일 루르드/파티마 성지 순례 포함 25년 3/30 (599만원+2000유로) catravel.co.kr 070-4086-0207	이삿짐은 우리트랜스 돌아가신 분 유품도 처리해드립니다 대표 변성만(요한) 권명숙(로사리아) 582-1414 010-4042-8662	독일보청기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 무료, 일반90%) 세계6대브랜드 보청기 모두 취급 판매 김무나(글라라) 교우특별할인 803-5588, 1871(빨간색간판)